

학교앨범의 미래는 촬영을 넘어 플랫폼과 데이터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촬영 중심 시대를 넘어
디자인·데이터·사진 선택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학교 앨범 시장

학교 앨범 시장은 더 이상 ‘누가 더 잘 찍는가’의 경쟁이 아니다.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운영 전체의 효율을 설계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 취재 한장훈 홍보위원장



▲ 미디어피아 김용우 대표

“촬영만 잘해서는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

촬영만으로는 한계인 학교 앨범 시장

미디어피아 김용우 대표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사진을
해온 포토그래퍼 출신이다. 현재는 학교 앨범 디자인 및
제본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단순
제작을 넘어 시스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현재 학교 앨범 시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예전에는 촬영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운영 전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학부모들의 기대
수준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특히 학생 개별 사진 선택 과정은 현장
사진관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촬영보다 더 힘든 게
관리입니다.” 사진 분류, 학생 확인, 선택 과정, 수정 요청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촬영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포토그래퍼 출신 제작자의 시선

김 대표는 일반 인쇄업체와 포토그래퍼 출신 제작자의
차이를 “현장을 이해하는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을

직접 해본 사람은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압니다.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도 경험해 왔고요.” 그는
디자인 작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진의 흐름’
이라고 말했다. “학교 앨범은 단순 편집물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시간과 분위기가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에서도 단순 화려함보다 학교별 특성과 분위기를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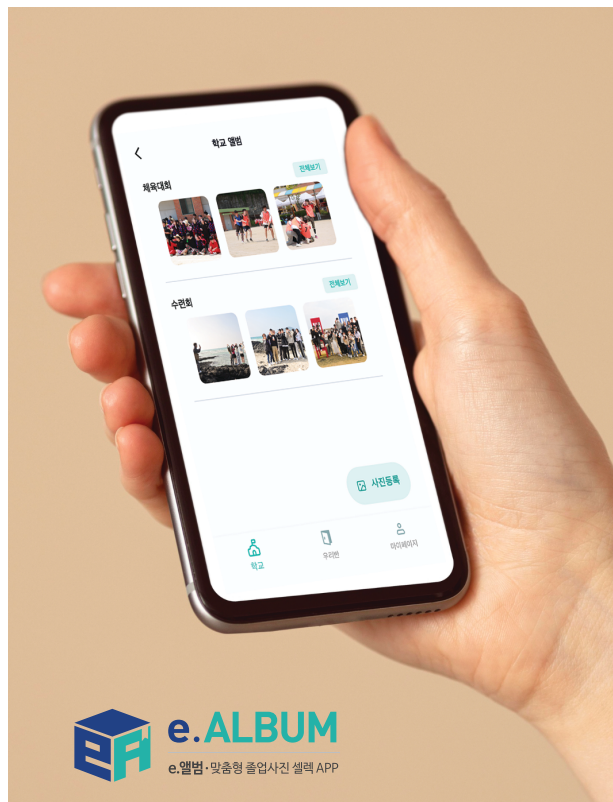
단순 촬영 수익만으로는 한계

김 대표는 학교 앨범 시장이 점점 수익 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전 방식으로만 운영하면 수익성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단순 촬영 수익 중심 구조는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쇄물 영역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앨범 외에도 다양한 인쇄물 제작과 디자인 영역으로 확장
하면서, 단순 납품 구조가 아닌 결과물 중심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관들도 이제는 촬영 외 수익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앨범의 새로운 기준, eALBUM 사진선택 시스템

이번 탐방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미디어피애플이 자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사진 선택(Photo Select) 시스템이다. 김용우 대표는 학교 앨범 제작현장에서 오랫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진 선택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사진 선택 과정은 촬영보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사진 분류, 학생 확인, 선택, 수정 요청까지 모든 과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피애플의 사진 선택 시스템은 단순한 웹페이지 기반 서비스가 아니다. 학생 개인 인증을 통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본인 사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사진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또한 기존 업체들이 주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미디어피애플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전용 앱(eALBUM)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사진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와 사진관은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현재 eALBUM 플랫폼은 사진 선택 기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졸업앨범, 졸업영상 서비스, 학급 커뮤니티 기능까지 통합 제공하고 있다. 졸업 후에도 학생들은 모바일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소중한 학교생활의 추억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촬영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보안, 사용자 경험까지 갖춘 시스템이 경쟁력입니다.”

AI 시대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각’

김 대표는 앞으로 학교 앨범 시장이 단순 촬영 경쟁에서 운영 시스템 경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촬영 기술은 결국 상향 평준화됩니다. 중요한 건 운영 효율과 관리 구조입니다.” 특히 데이터 관리와 고객 응대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의 감각’이라고 강조한다. “기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흐름을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 앨범 산업은 지금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앨범 시장은 더 이상 단순 촬영 산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디자인, 데이터 관리, 고객 응대, 선택 시스템, 운영 효율이 모든 요소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김용우 대표의 고민은 결국 하나로 정리된다.

“학교앨범의 미래는 촬영을 넘어 플랫폼과 데이터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현장이 마주하게 될 변화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다.